



교육홍보부

일본, 수도용 제초제 사용량 증가

지난해 일본의 수도용 제초제 시장의 규모 및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일본식물조절제연구협회(JAPR)가 밝혔다. 총 27,853톤의 제초제가 사용되었으며, 이는 전년대비 1.5% 증가한 양으로 금액으로는 4.4% 증가한 728백만달러에 달한다. 이로써 수도용으로 살포된 농약의 총 면적(혼합제 포함)은 전년대비 3.2% 증가한 2.9백만ha에 달했다.

수도용 제초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발처리제(one-shot herbicide)의 경우 15,824톤으로 523백만달러의 매출을 차지하며 총 1.7백만ha에 살포되었다. 발아후처리제는 572천ha에 7,385톤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122백만달러 어치에 해당한다. 이양전 및 초기처리제는 613천ha에 83백만달러에 해당하는 4,643톤이 사용되었다.

일본농림수산성의 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2011년 총 수도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% 감소한 1.5백만ha를 약간 상회한다고 밝혔다. 밀과 보리의 재배면적은 2% 증가한 275,800ha, 콩의 재배면적은 1% 감소한 136,700ha라고 전했다.

일본의 농약시장 현황...

일본의 농약시장은 부진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말 매출액기준 약 1%증가한 4,105백만달러(한화 약 4조5천억원)를 기록했다. 일본작물보호협회(JCPA)에 따르면 수도용 농약매출의 전년대비 품목별 증감률은 제초제 3%(1.4백만달러) 증가, 살충제 2%(1.2백만달러) 감소, 살균제 및 살균·살충제는 각각 1%(949천달러, 132천달러)씩 증가하였으며 기타약제는 4%(132천달러) 감소하였다.

이로써 전체 농약시장 중 수도용과 과수용은 각각 3%(1.5백만달러, 628천달러)씩 증가한 반면, 채소용은 1%(1.4백만달러) 감소하였다. 기타 작물의 농약시장은 4%(364천달러) 감소를 나타냈다.

